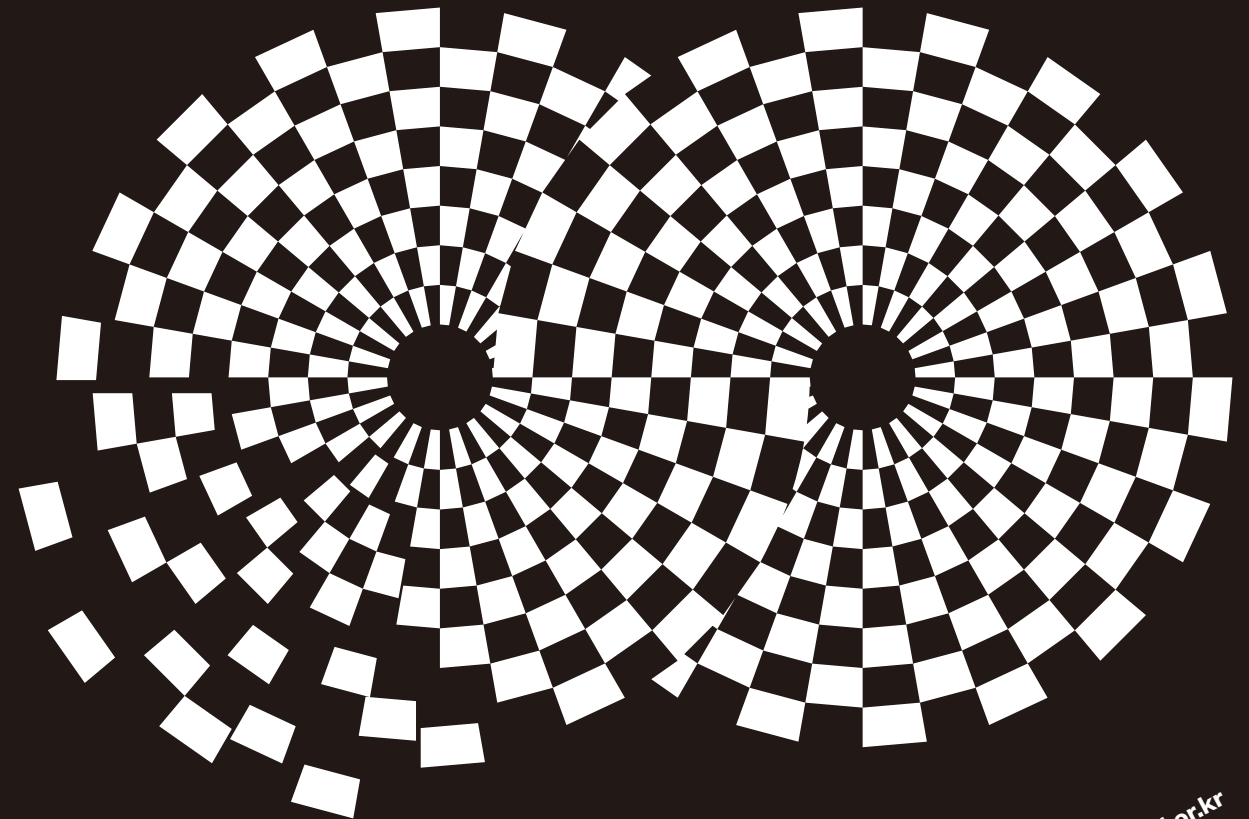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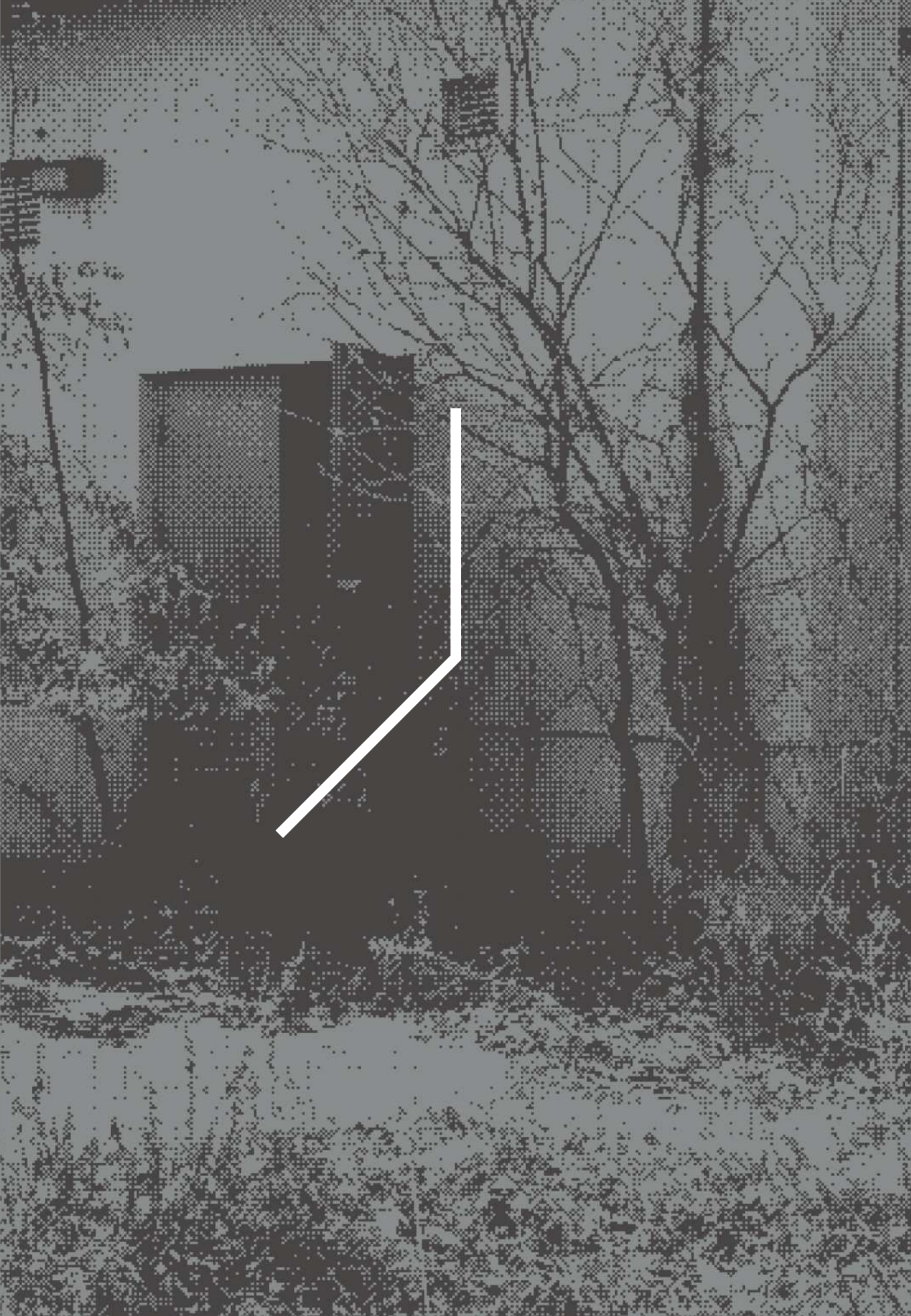
TIME LOST | TIME REGA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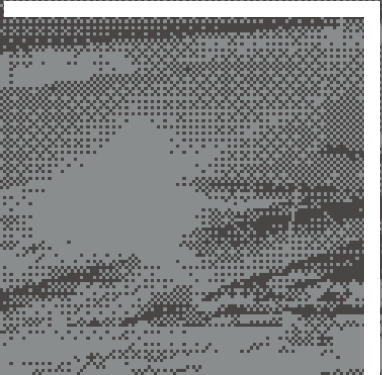
두 개의
시간 TIME LOST,
TIME REGAINED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7-1
캠프그리브스 '갤러리 그리브스'

www.dmzcamp131.or.kr





DOMZ





가장 슬픈 한 끼, 골골이죽

어전혀 6.25세대의 기억 속에는 골골이죽에 얽힌 많은 이야기가 있다. 누가 이들을 그렇게 불렀는지 알 길이 없지만, 6.25 직후 피로 과정에서 배고픈 음식 쓰러기를 다시 겪어, 서양 노점에서 팔았는데, 이를 골골이죽이라고 했다. 골골이죽의 내용은 참말 각양각색이다. 쌀, 소시지, 감자튀김, 소금,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수프와 빵 등이 포함된 음식이다. 어떤 경우는 그 속에 담배코스와 얽힌 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몇달이 지난 뒤에는 살이 더러워 다시 일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후행했던 우리들이 슬픈 자화상이었다.

A HEARTBREAKING SUPPER, DINK DINK PORRIDGE

During the Korean War, ingredient became tremendously inefficient. People resorted to boiling food waste from U.S troops and sold it as "Dink, Dink Porridge". The components of the porridge included beef, sausage, french fries, chicken, beef, pork and bread, hence the name. "Dink, Dink Porridge". Frequently, cigarette butts, (tossed as spurs) and other waste were commonly found within the porridge.

「골골이죽」을 아십니까

밀가루 원소로 일어난 일

전쟁으로 학살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갔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다. 밀가루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밀가루는 전쟁 중에는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밀가루는 전쟁 중에는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밀가루는 전쟁 중에는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소중한 사람,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일상이 그

두 개의 시간



TIME LOST, TIME REGAINED

목차 CONTENTS

- 15 - 1129일의 기록
1129 DAYS OF THE KOREAN WAR
- 21 - 전쟁과 일상 사이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MIDST OF WAR
- 27 -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
THE OPPOSITE OF WAR IS NOT PEACE,
IT IS THE DAILY LIFE.
- 34 - 경계 너머의 대화
DIALOGUES BEYOND BOUNDARIES
- 38 - 캠프그리브스 주둔 미군 군용품 전시
(경기관광공사 소장)
EXHIBITION OF GOODS OF
U.S. MILITARY AT CAMP GREAVES
(ARCHIVED AT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 43 - 작품소개
ART WORKS

두 개의 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전쟁의 포화 속에 서게 되던 그 날로부터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참혹함을 직접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거쳐 전후(戰後)의 피폐한 삶 속에서 배고픔을 경험한 부모님 세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과거’를 ‘역사’로 바라보아야 할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전쟁은 더 이상 누군가의 뜨겁고 생생한 경험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 기억도 아닌, 그저 낯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칼이 오가지 않고 포성이 멈추었을 뿐, 그 멈춘 자리에는 몇 겹의 철책이 둘러쳐진 아주 튼튼한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인 비무장지대 DMZ는 바로 이러한 남북의 단절과 대치, 경계의 상징입니다. 일견 평화로운 하루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는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 한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캠프그리브스 볼링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이야기는 6·25전쟁의 치열했던 전투현장, 처참하게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 등,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로서 기록적 사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포탄처럼 시시각각 죄어오는 두려움과 번뇌, 통증과 울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전쟁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참혹한 전쟁보다도 더 힘겨웠을 일상을 견뎌낸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시대의 진실이 가슴으로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메모리(Post-memory)세대에 속하는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설치작품들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흔적, 이념의 갈등, 미래의 화합과 평화에 관한 지금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로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현재의 과제로 돌아오는 귀환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TIME LOST, TIME REGAINED

About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y when everybody in Korea was suddenly plunged under fire of the Korean War. Long years have elapsed to the point of having to view the ‘past’ as the ‘history’ as Korea has witnessed the generation of our grandparents that vividly experienced the fear and devastation of the war and that of our parents suffering from hunger in impoverishment in the post-war period. For the new young generation that knows nothing about the war in today’s world, the war is simply turning into a story they cannot find familiar – neither a heart-scorching and vivid experience for some nor a memory that is even challenging to recall.

There stands a very robust boundary surrounded by layers of barbed wires on the place of armistice, but with no more guns, swords or artillery fire. The demilitarized zone or DMZ we stand now today is a symbol of the inter-Korean rupture, confrontation and guard. Seemingly enjoying peaceful days and lives, we still stand on one side of the shadow of a war.

The story to be encountered at the bowling alley of Camp Greaves is not merely about documentary facts as the bygone past including the fierce battlefield of the Korean War and the desolately ruined village. It is hoped that the audience c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tory of the ordinary people that had no other choice but to confront the war with the best they can despite fear and agony. It is believed that the truth of that era which cannot be told through generic historical facts could reson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stories of the people that coped with more horrific daily life than the devastating war itself. Through Various installation works of young artists, who have not directly or indirectly experienced the war, represent voices of today’s generation can regarding the remains of the war and division, ideological conflicts, and harmony and peace in the future.

The history is not a journey towards the past but a return to the pending issues of the present. It is hoped that we are living the next chapter of the history.

1129일의
기록

1129 DAYS
OF THE
KOREAN
WAR

①

낙동강 방어선 전투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8-9월 낙동강 부근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였다. 전쟁 발발 후 국군은 북한군 기습공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했다. 1950년 8월 1일에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여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결국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게 되었다.

Nakdong River Defense Battle Battle

It was a battle lasting from August to September, 1951 where the South Korean and UN forces dedicated their lives to halting the North's advance to the South. In a situation where the South Korean forces could not get away from the sudden attack of the North Korean forces after the war erupted, its battle forces were relatively inferior even with the cipation of the UN forces. The South Korean forces failed to repel the North Korean forces' advance towards the south and on August 1, 1950, they retreated to the Nakdong River. The South Korea forces could survive the reckless attach of the North's, ending up eliminating its forces at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1-1

1-1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핵심 지역인 영산의 외곽지역에서 미해병대원들에 미해병대원들이 접근해 가고 있다. (1950.9.3)
NARA 소장

Marines close in on outskirts of Yongsan, a key point in their successful Nakdong River fighting.
Archived at NARA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주도로 진행된 군사작전이다. 북한군의 허리를 절단하여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목표로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되었다. 이 작전으로 2주만에 서울을 되찾는데 성공하여, 1950년 9월 27일 정오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은 끝나게 된다.

Incheon Landing Operati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or the Battle of Incheon is a military operation commanded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he U.S. Army officer in command of all UN forces in Korea on September 15, 1950. The landing operation involved 75,000 troops and 261 naval vessels, which helped cut off supply routes to North Korean troops that were advancing south across the peninsula. The invasion subsequently led to the recapturing of Seoul two weeks later. At the noon of September 27, 1950, Korea Marine Corps put up the Korean flag at the Capitol building, which put an end to the operation.



1-2

1-2
인천 상륙 작전 직후의 불타고 있는 인천 시가지(1950.9.16)
NARA 소장

Streets in Incheon on fire immediately after the Battle of Incheon started (September 16, 1950)
Archived at NARA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다. 1950년 11월 27일, 중공군은 장진호 지역에서 미국 제10군단을 기습 공격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의 전투 기간 동안 30,000명의 유엔군 병력이 포위되었고, 약 120,000명의 중공군이 이들을 공격했다. 유엔군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위해 싸움을 이어나갔으며 중공군의 사상자를 늘려가며 포위를 돌파했다. 결국 중공군은 유엔군을 북한 동북부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나 큰 피해를 입었다.

Battle of Lake Jangjin

The Battle of Lake Jangjin or the Battle of Chosin Reservoir is one of the decisive battles of the Korean War. On 27 November 1950, the Chinese force surprised the US X Corps at the Chosin Reservoir area. During a 17-day battle between November 27 and December 13, 30,000 UN Command troops were encircled, and attacked by about 120,000 Chinese troops. The UN forces, nevertheless, kept on fighting to break out of the encirclement, and made a fighting withdrawal. The Chinese troops succeeded in the withdrawal of UN troops from northeast of North Korea, but suffered heavy casualties.



1-3

1-3

장진강 비행장 주변에서 중공군 저지를 위해, 미해병대가 인근 야산을 향해 함포를 발사하고 있다. (1950.12)
NARA 소장

U.S. Marine Corps dropping a naval artillery to a nearby mountain to wipe out the Chinese troops near an airfield of the Chosin Reservoir. (December 1950)
Archived at NARA

1-4

장진호 전투 후, 미해병대원들이 함흥에 있는 사단묘지에서 사망한 전우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1950.12)
NARA 소장

Marines pay their respects to fallen buddies during memorial services at the division's cemetery at Hamhung, Korea, following the break-out from Chosin Reservoir.
Archived at NARA



1-4

흥남 철수

흥남 철수는 최대 규모의 해상철수 작전으로 진행되었다. 12월 14일, 군 병력이 승선하기 시작하여 12월 24일 철수를 마쳤다. 유엔군 육,해,공군이 체계적인 협동작전을 통해 흥남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12월 19일부터 시작된 피란민 철수는 마지막에는 승선 정원의 10배 이상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흥남 철수는 많은 이들의 결단과 용기, 희생의 산물로, 이를 통해 군인 105,000명, 피란민 91,000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다.

Heungnam Withdrawal

The Heungnam Withdrawal was carried out as the largest sealoift or the fighting withdrawal. The military troops were aboard from December 14, and completed the withdrawal on December 24. The systematic joint operation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of the UN troops resulted in effectively defending the Heungnam region, which made the withdrawal successful. The refugee withdrawal which started from December 19 ended up loading over 10 times the shipping quota. The withdrawal could safely rescue 105,000 soldiers and 91,000 refugees symbolizing the determination, courage and sacrifice of many.



1-5-1

1-5-2

1-5

흥남 지역 탈출을 위해 승선하려는 피란민들. (1950.12.19)
NARA 소장

Refugees that are about to go aboard to escape from Heungnam (December 19, 1950)
Archived at NARA



백마고지 전투

6.25 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던 백마고지 전투는 강원도 철원의 서북방 395고지(백마고지)에서 1952년 10월6일부터 10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국군과 중공군의 쟁탈전이 벌어진 전투이다. 결국 국군이 끝까지 사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중공군은 약 1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30만여 발의 포탄이 투하되면서, 초토화된 하얀 민둥산이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됐다.

Battle of White Horse

The Battle of White Horse, a battle during the Korean War at its peak, was held on the crest of 395-meter ("White Horse Hill") forested hill mass that extended in a northwest-to-southeast direction in Cheolwon in Gangwon Province. The battle was with 12 repeated attacks and counterattacks between the ROK troops and the Chinese Army for 10 days from October 6, 1952. While the ROK forces secured victory, the Chinese Army sustained a total of 14,000 casualties. The hill has been called "White Horse" since the hill lost its original shape and looked like a lied-down horse due to the severe artillery fire where 300,000 cannon balls were fired.



1-6

1-6

백마고지를 탈환한 후 만세를 부르는
국군 제9사단 장병들(1952.10)
전쟁기념관 제공

ROK Army 9th Div. troops,
shouting with joy after taking
White Horse Hill.

1-7

백마고지 쟁탈전에서 소모된
산더미처럼 쌓인 포탄피 (1952. 10)
전쟁기념관 제공

Piles of artillery shells left
after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1-7

전쟁과 일상 사이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MIDST
OF WAR

②

초콜릿 한 조각의 달콤한 행복

초콜릿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것은 6.25전쟁 때부터였다. 당시 미군은 전투식량이었던 씨레이션(C-ration)에 포함된 디저트였던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미군 지프를 따라가며, 아이들은 “Gimme Chocolate!”을 외쳤고,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의 달콤함은 아이들에게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어떤 가족들은 미군에게서 얻은 초콜릿을 들고 사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Sweet happiness from a piece of a chocolate

It was from the Korean War when chocolate started to be widely known among the people. The U.S. Army used to distribute chocolate, a type of dessert included in the C-ration or combat ration, to children. Children yelled “Gimme Chocolate!” as they chased thirst-raising U.S. military jeeps running by. The sweetness of the chocolate thrown at them by the U.S. forces remains as an intense remembrance for the children. Some families even took commemorative photos at a photo studio by holding the chocolate given by U.S. troops.



2-1

2-1

미해병대원이 포항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모습
NARA 소장

A marine from the U.S. Marine Corps distributing chocolate to children at an orphanage
Archived at NARA

2-2

미8군 187수송대대 장병들이 돌보는 한국인 고아가 초콜릿 바를 꺼내는 모습(1950.6.20)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 Korean War orphan who is now being taken care of by men of the 187th A/B Rct., US 8th Army, picks out a chocolate bar.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2

전쟁이 발명한 인스턴트 커피

전쟁 중에도 휴대가 가능하도록 군용 목적으로 개발된 인스턴트 커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보급품으로 지정되어 전군에 지급되었다. 국내에는 6.25 전쟁 때 미군의 보급품으로 처음 들어왔다. 커피는 수면이 부족했던 군인들의 각성효과와 함께 힘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군 PX로부터 인스턴트 커피가 시중에 흘러나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대중화되었다.

Instant coffee as an invention of the war

The instant coffee developed for military troops, which could be portable during a war, was distributed to all the troops as it was designated as a military supply during World War II. It first entered Korea as a supply of the U.S.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It caffeinated and empowered sleep-deprived soldiers. The instant coffee came out of the PX or the post exchange of the U.S. Army after the war, started to be distributed and gained immediate popularity among the people.



2-3

2-3

미군 제2사단 제72탱크대대 소속 병사들이 출동에 앞서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1953. 1. 22)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NARA 소장

Members of the 27nd Medium Tank Battalion, 2nd U.S. Infantry Division, drink coffee before going into ac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rchived at NARA

2-4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는 미해병대원들
NARA 소장

Marines of the U.S. Marine Corps drinking strong black coffee
Archived at NARA



2-4

전쟁과 일상 사이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MIDST OF WAR

밀가루 원조로 달라진 식탁

전쟁으로 먹거리가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구호물자인 밀가루는 식탁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배급 밀가루가 범람하면서, 밀가루는 시장에서 싼 값에 유통되면서, 가장 싸고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수제비가 종종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지게 되었다. 다만 지금처럼 부재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타일이 아니라, 물에다 고추장이나 된장, 혹은 소금으로 간단해서 끓여냈다고 한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 중에 북한 출신 사람들은 고향음식인 냉면을 대체할 음식으로, 당시 구호품으로 받은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명한 밀면의 시작이었다.

Flour assistance changing everyday meals

Flour as an assistance supply from the U.S. changed what people ate in their daily life at a time when food was scarce in the post-stricken society. As flour rationing was common, flour was distributed at a low price, so *sujeobi* – hand-torn noodle soup – which could be quickly prepared at a low price – served as the people’s staple food. Yet, it is said that only the water with seasoning – red chili paste, bean paste or salt – was used to make it, unlike today’s version with many ingredients inside. Meanwhile, people from North Korean among the refugees that flocked into Busan from all parts of Korea prepared *naengmyeon* or cold noodle with the rationed flour as a dish to substitute their local food, which was the start of today’s renowned noodle of *milmyeon*.



2 - 5

2 - 5

홍남 철수시 민간인 배급용
밀가루 포대를 트럭에 옮겨 실는
모습(1950.12.13)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NARA 소장

People loading flour bags to be
distributed to civilians onto a
truck in Cheolsu, Heungnam
(December 13, 1950)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rchived at NARA

2 - 6

원조 밀가루 포대(1950년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Bags containing wheat flour aid.



2 - 6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이들, 슈샤인 보이와 하우스 보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삶 속에서, 피난민 아이들과 전쟁고아들은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엔군 기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의 군화를 닦아주는 아이들은 ‘슈샤인 보이’, 그리고 막사 청소나 각종 심부름을 해주는 소년들은 ‘하우스 보이’라고 불렸다. 특히 하우스 보이는 주로 전쟁 고아들 중에서 선정했는데, 이들은 부대 안에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잔 심부름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하우스 보이 중 일부는 미군에게 입양돼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Children as bread bearers: “shoe shine boy” and “house boy”

Refugee children and war orphans flocked around military camps of the UN forces to escape from cold and hunger in the war-stricken nation. The children that wiped off the military shoes of soldiers by running around the camps were called “shoe shine boys” while the boys that cleaned up barracks and did various types of chores were dubbed as “house boys.” In particular, “house boys” were selected among war orphans who lived with soldiers in the camps to do trivial chores and help with simple communication. Some of the house boys were adopted by U.S. soldiers and flew to the U.S.



2 - 7

2 - 7

하우스 보이(1952.4.18)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NARA 소장

House boy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rchived at US Army Photo



2 - 8

2 - 8

슈샤인 보이(1950.8.2)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US Army Photo 소장

Shoe shine boy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rchived at US Army Photo

전쟁과 일상 사이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MIDST OF WAR

혼돈의 시대가 남긴 신조어 및 유행어

언어는 한 시대, 한 사회의 사고방식과 문화,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6.25 전쟁이 남긴 삶의 파괴된 현장과 시대의 고단함은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어냈다.

깡통

전투식량인 씨레이션의 포장용기를 일컫는 영어 ‘캔(can)’과 한글 ‘통’이 결합한 말

골로 간다

6.25전쟁때 이념의 차이에 따른 민간인 학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산골짜기로 사람들을 데려간 뒤 아무도 모르게 죽인 후, 골짜기에 매장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골로 간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다. 현재는 그 어원과 관계없이 ‘골로 간다’라는 말은 ‘죽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공갈치다

1950년대 당시 쓰이던 ‘공갈치다’는 ‘공포를 느끼도록 상대를 억박지르다’를 의미하였다. 그 당시 군경이나 우익단체들은 사상적 이유로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며 공갈을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로 인해 ‘공갈치다’는 매우 유행하던 말이었다. 현재는 다소 다른 의미로 ‘거짓말하다’, ‘과장하다’의 의미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뻥’ 하고 죽는다

6.25 전쟁 당시 집안 배경이 든든한 청년들은 징집되지 않았다. 가난하고, 배경이 없는 이들만 전장에 투입되어 죽는다는 의미로 ‘뻥하고 죽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Newly coined words and buzz words as remnants of the chaotic period

A language reflects the way of thinking, culture and the lifestyle of an era and a society. Exhaustion from the destroyed sites and era left off by the Korean War brought about new expressions.

Ggangtong (“canned container”)

A combination of the English word “can” as in canned products phonetically sounding similar with “*ggang*,” and “*tong*” meaning a “container” to refer to the packaging container for combat ratio or c-ration.

Go to “*gol* (a hollow place)” (“be put to death”)

The civilian massacre was common due to ideological differences during the Korean War. People were taken to hollow areas between mountains, put to death secretly and were buried there. This is how “go to gol (a hollow place)” was coined. Currently, this expression also mean “one might die” regardless of the linguistic origin.

Gonggal-chida (“threaten”)

The expression used in the 50s meant “browbeating somebody into fear.” Back then,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or rightist groups often pointed a gun at civilians and threatened them for the sake of ideologies, and the expression of “*gonggal-chida*” was such a buzz word. In today’s world, it has been modified in its usage to mean “tell a lie” or “exaggerate.”

Lose one’s life, saying “*bbaek* (having no “connections”)

During the Korean War, financially affluent youths were not conscripted, and only the poor with no connections were conscripted to the battle field, which made the expression popu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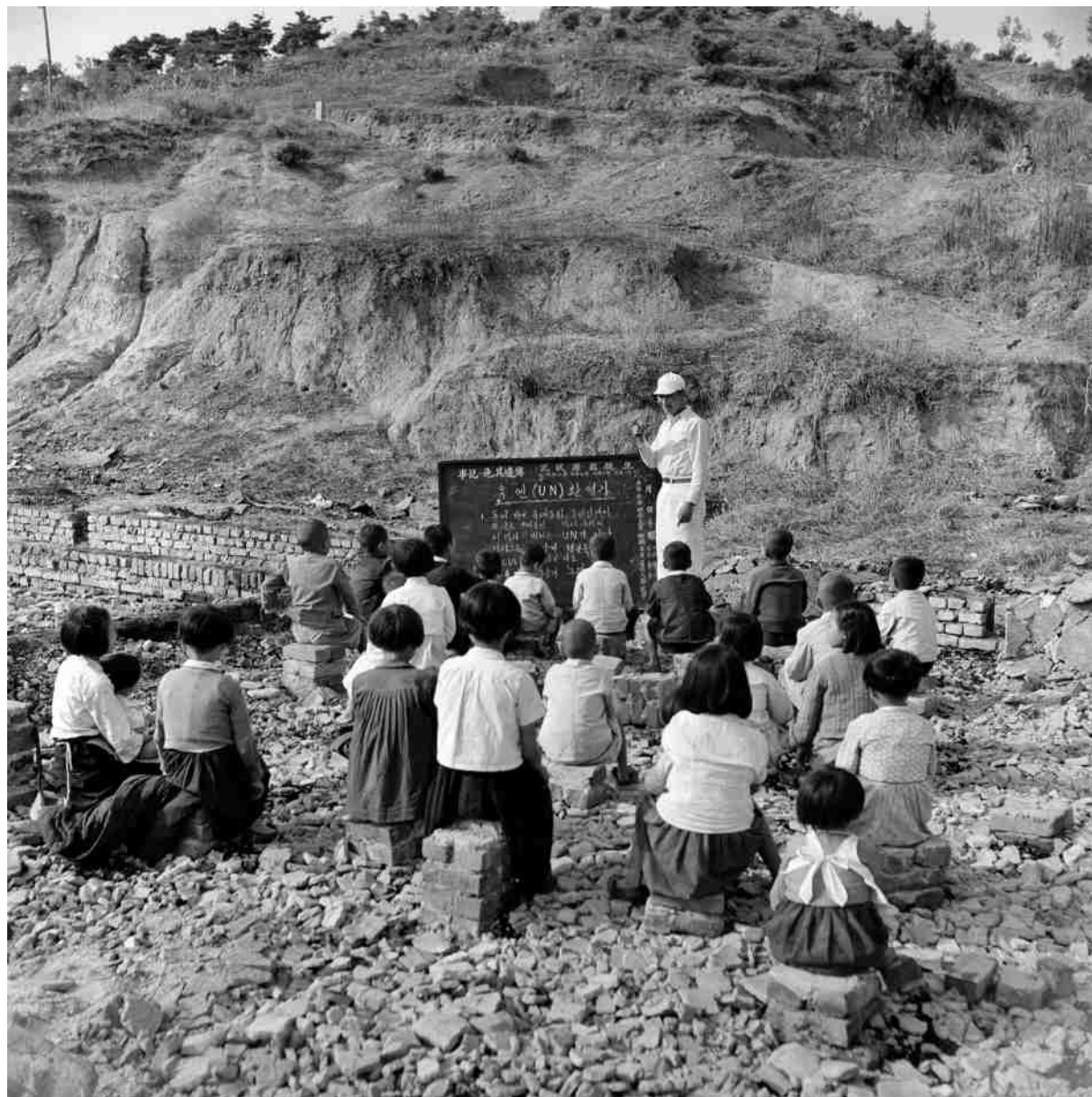
③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

THE OPPOSITE OF WAR IS NOT PEACE,

IT IS THE DAILY LIFE



3-1

3-1

삶은 계속된다.

The life goes on.



3-2

3-2

일상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평화다.

It is peace where
our daily life is
kept intact.

3-3

세상의 소란함과
불안함 속에서
너의 평화를
잃지 않기를.

Wishing you not
to lose your inner
peace in the fussy
world of anxiety



3-3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
THE OPPOSITE OF WAR IS NOT PEACE,
IT IS THE DAILY LIFE



3-4

3-4

평화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Peace has
an ordinary
face.



3-5

3-5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오늘

Today which we can
call a miracle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
THE OPPOSITE OF WAR IS NOT PEACE,
IT IS THE DAILY LIFE



3-6

3-6

세상이 모든 것을 파괴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시 강해진다.

People get stronger
again where the
world has destroyed
everything.



3-7

3-7

두려움도, 작은 흔들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저 멀리
날아가버린다.

Fear - and even
jitteriness - flies away
at the laughter of
children.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
THE OPPOSITE OF WAR IS NOT PEACE,
IT IS THE DAILY LIFE

경계 너머의 대화

DIALOGUES BEYOND BOUNDARIES

4

경계 너머의 대화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 냉전이라는 국제적인 정서로 인해 1960년대까지 남과 북은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국제사회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북한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텃다. 남북이 적대와 대립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고 있다.

1971. 9. 20	남북적십자회담
1972. 7. 4	남북공동성명
1972. 8. 29	남북적십자회담
1984	인도적 지원 합의
1984. 11. 15	제1차남북회담
1985	이산가족상봉
1990. 4. 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1992.	남북기본합의서
1998	금강산관광
1998	대북 인도적 지원
2000. 6. 13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2000. 7. 29	남북장관급회담
2000. 9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2000. 12. 12	남북정상급회담
2003. 6	개성공단착공
2007 10.4	선언

Dialogues beyond Boundaries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on July 27, 1953,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ld not attempt for a dialogue until the 60s amid the international sentiment of the cold war. Yet,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gan to f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70s when the dialogue between the respective Red Cross Socie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tarted in 1971. Efforts for peace continue on till today even amid the bilateral hostility and confrontation.

Sep. 20, 1971	Inter-Korean Red Cross talks
Jul. 4, 1972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Aug. 29, 1972	Inter-Korean Red Cross talks
1984	Agreement o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Nov. 15, 1984	1st inter-Korean summit
1985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pr. 7 1990	1st inter-Korean high-level talks
1992	Inter-Korean Basic Agreement
1998	Mt. Kumgang tourism
1998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Jun. 13, 2000	Inter-Korean summit and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Jul. 29, 2000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Sep. 2000	Marching together under the same flag at the Olympic Games in Sydney
Dec. 12, 2000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Jun. 2003	Groundbreaking for Kaesong Industrial Complex
2007	October 4th Declaration



캠프그리브스 주둔 미군 군용품 전시

(경기관광공사 소장)

EXHIBITION OF GOODS OF U.S. MILITARY AT CAMP GREAVES

(ARCHIVED
AT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⑤

마네킹 착용

1. M42 점프 슈트 상의

강하시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스냅 단추로 제작되었으며, 목 카라 부분에는 강하 후 낙하산 줄을 자르는 휴대용 나이프를 넣을 수 있는 전용 주머니도 있다. 그 외에 바지의 레그백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끈 등 일반 군복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2. 공수부대원 군장

M1 소총을 사용하는 병사용 카트리지 벨트로 단독 군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쇼케이스

1. 정복용 모자

2. 공수부대 전투화

코코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강화 군화로 제작회사 이름을 따서 코코란 부츠로 불렸다. 일반 전투화와 다르게 장거리 이동시 피로감 감소를 위해 바닥창이 폭신하게 만들어져 있다.

3. 근무복(혹은 약정복)

상의가 긴 정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1보병사단의 부대패치 및 병장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으며 각종 인시그니아(보병 병과장, 미육군 공수기장, 미육군 보병전투기장, 특등사수 휘장, 506연대 뱃지 외)가 부착되어 있다.

*군복에 부착하는 약장 및 휘장을 인시그니아라고 칭한다.

Mannequin outfit

1. Upper garment for Jumpsuit M42

Press buttons are used for not losing items upon falling down, and the neck collar area has an exclusive pocket for putting in a portable knife to cut the parachute string. Its design is different from ordinary military uniforms because it has a string for fixation for fixing the leg bag on the pants.

2. Military honors for the airborne forces

The exclusive military honors are represented with the cartridge belt for soldiers using M4 rifle.

Showcase

1. Military uniform cap

2. Combat shoes for the airborne forces

They are reinforced military shoes made by a company named Coco, and were called "Cocoran Boots" named after the brand. Unlike ordinary combat shoes, their outsole is cushiony to reduce fatigue upon traveling long distances.

3. Service dress uniforms (or full-dress uniforms)

The upper garment is long, and during World War II, the unit patch and the Staff Sergeant of the 101st Infantry Division were attached along with various insignias (including infantry metal insignia, U.S. Army air badge, U.S. Army combat infantryman badge, expert gunner insignia and 506th regiment badge, etc.).

* Ribbons and badges attached to military uniforms are referred to as insignias.



캠프그리브스
주둔 미군 군용품 전시



EXHIBITION OF GOODS OF
U.S. MILITARY AT CAMP GREAVES



작품소개

⑥

김지환
유일상
유금상
신상섭

ART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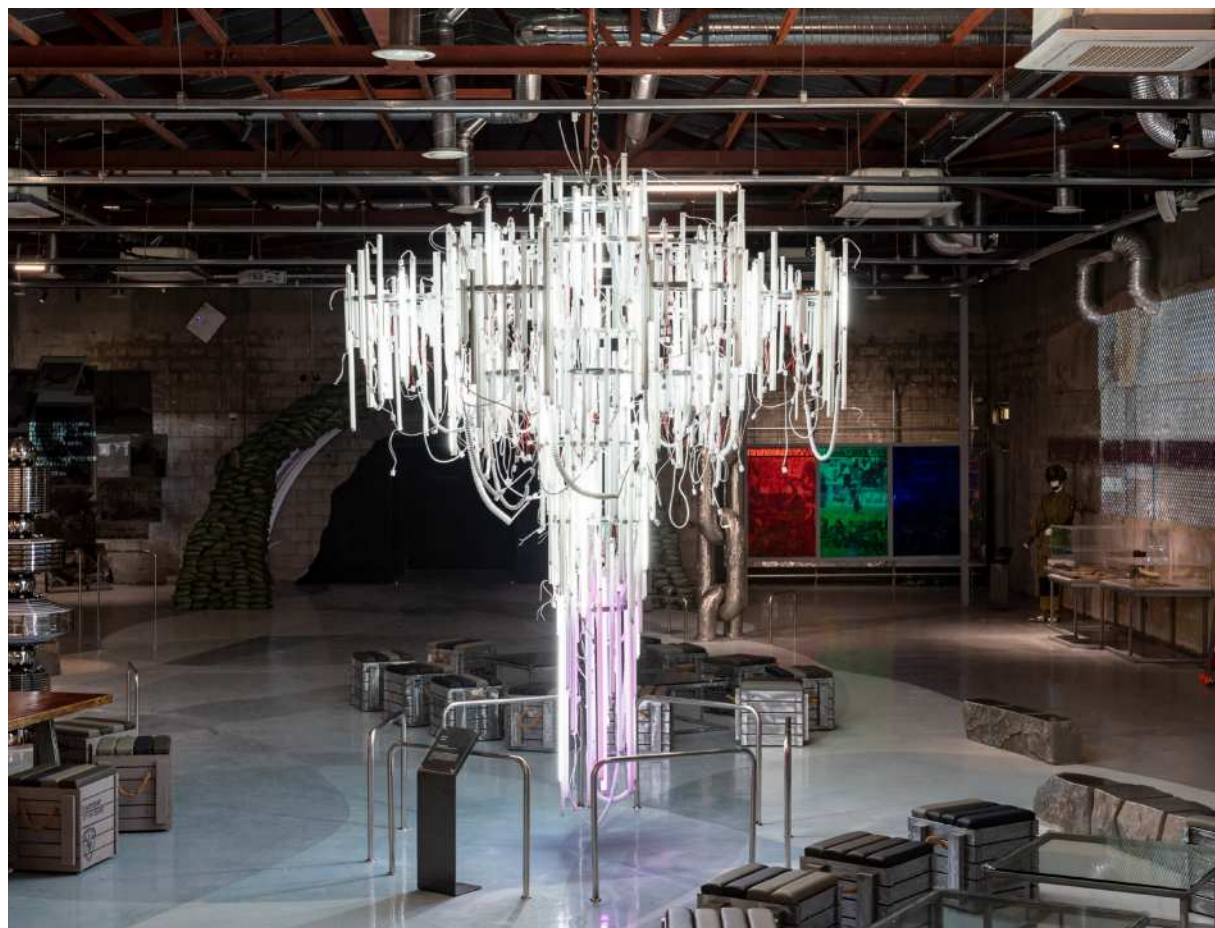
K.Whale
Yoo Il Sang
Yoo Geum Sang
Sergio

김지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원형구조는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 16개의 나라를 상징한다. 여러 종류의 전선들은 복잡다단한 상호관계 속에서도 힘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수많은 형광등 사이로 뿜어 나오는 한 줄기 보랏빛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은유 한다.

K.Whale

The 16-circular structure surrounding the center symbolizes the 16 participant countries of the UN in the Korean War. Different types of wires visualize the face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to lose a power balance in the complicated interlinked relationships. A strand of purple light coming out of numerous fluorescent lamps embody the duality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which metaphorizes what we are in today's world.



Connected 16
2020, steel frame, fluorescent light,
300x300x360(h)cm

유일상

원과 구는 그 중심점에서 동일한 거리의 점들이 모여 그 형태를 만든다. 그것은 같은 방향, 같은 힘의 에너지들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개의 원판들이 모여 원기둥을 이루고, 이를 받치고 있는 작은 구슬 모양의 볼트와 너트들, 그리고 이를 한 덩어리로 결합시키는 큰 구체로 구성된 이 작품처럼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여야만 큰 힘과 응집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원대한 꿈인 평화와 통일 또한 그러하지 않을까.

Yoo Il Sang

A circle and a sphere create a form as points in the same distance from the center gather together. It also means the combination of energies in the same direction and power. In this artwork where many disks form a cylinder is comprised of many marble-shaped bolts and nuts supporting it, and a big sphere combining them in a single chunk. Likewise, only when many elements gather together for a single goal, we can generate a great power and condensed energy. It would be so for our ambitious goal of peace and re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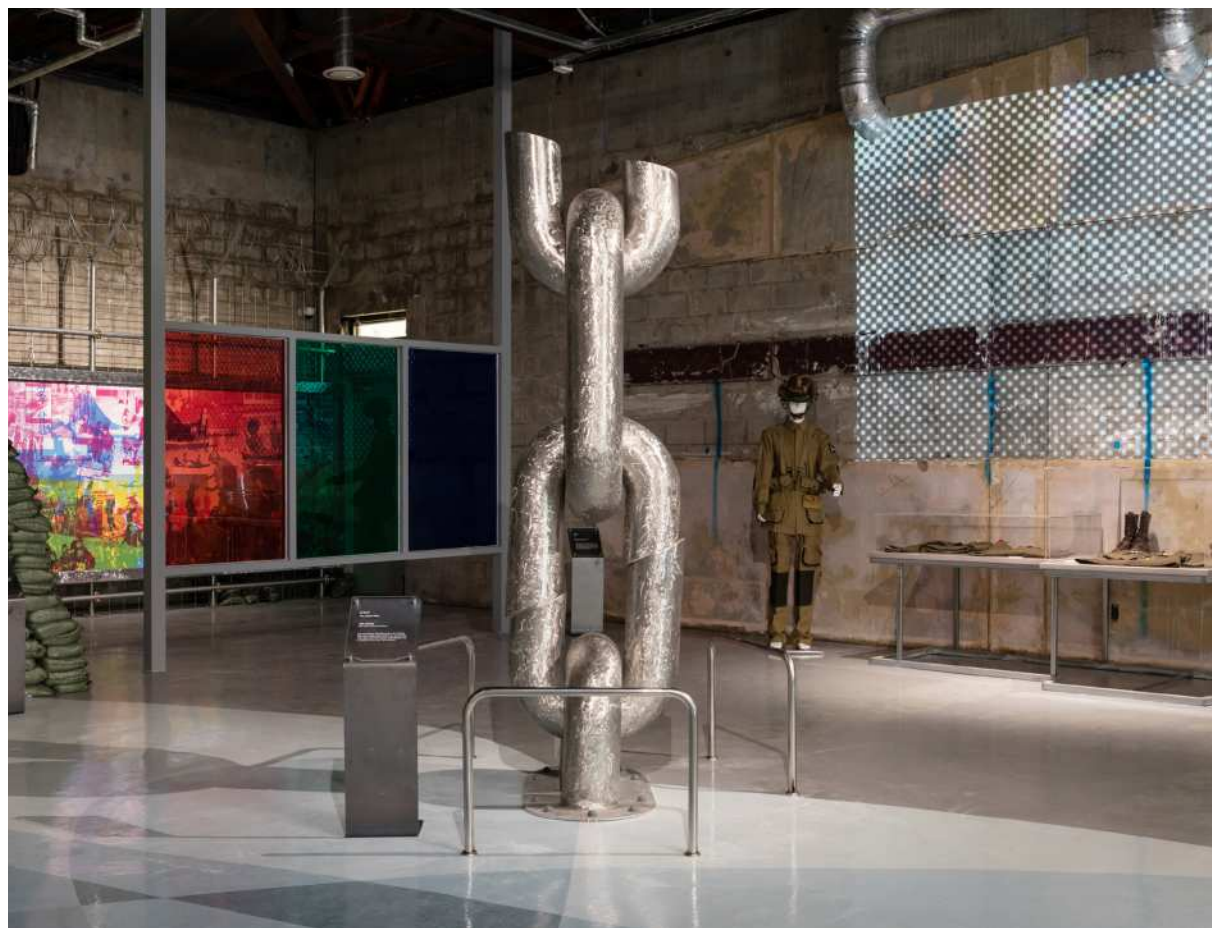
Powerful Coupling
2020, acrylic, stainless steel,
80x80x240(h)cm

유금상

얽히고 설킨 연결고리는 하나를 끊음으로 풀릴 수 있고, 어긋나 있는 연결은 새로운 기준점에서 맞춤으로 회복할 수 있다. 남과 북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을까.

Yoo Geum Sang

An interwoven chain can only unravel by cutting off one strand, and a chain going astray can only recover by connecting it again from a new cut-off point. Wouldn't it be so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Chain
2020, stainless steel,
67x67x250(h)cm

신상섭

카이로스의 터널은 어둡고 폐쇄된 이미지를 벗어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메타포로 사용되었다. 터널 내부의 몽환적인 오로라빛을 통해 관람객 개인의 추억 또는 특정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Sergio

The tunnel of Kairos was used as a metaphor for connec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transcending dark and closed images. The illusional aurora light in the tunnel is reminiscent of personal memories for the audience or memories of a specific era.



Kairos Passage
2020, projection mapping,
415x720x300(h)cm

TIME LOST, TIME REGAINED

자문·자료협조

국가기록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국정책방송

번역

최기원

사진

김진솔

디자인

일상의 실천

인쇄 및 제본

퍼스트경일

발행일

2020.12.15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www.dmzcamp131.or.kr

031-953-6970

© 2020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이 도록의 도판과 원고에 대한 출판권 및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있습니다.

본 기관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THOUGHTS UNSAID
THEN FORGOTTEN

THOUGHTS UNSAID,
FORGOTTEN



